

시애틀 워싱턴주 주소록

5천부 11월초 발간

저희 한인회가 수년간 기획해온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
록 5천부가 11월초에 발간됩니다.

UW 학생회(회장 김용수)가 여름방학 내내 수고하여 이
미 3천5백 세대의 주소가 수집 정리되었고, 식자 편집 인
쇄는 한국일보 시애틀 지사에 의뢰했습니다. 광고도 한국
일보에서 취급합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박태호

한인록 광고모집

마감 : 9월 25일

이번 한인회 주소록은 5년전에 나온 마지막 주소록에 비해 명단이 3배
이상으로서 지금까지 나온 서북미 어떤 주소록과도 비교가 안될만큼 방대
한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9월 25일까지 마감하오니 deadline 안에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1월 7일까지 발행해 한인회에 인계해야 하오니 광고주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요금표 (full page 기준)

뒤표지(color)	\$1,500
앞뒤표지 이면(color)	\$1,000
앞뒤표지 이면 바로 옆	\$ 800
그외 full page	\$ 300
1/2 page	\$ 180
안내광고 (classified)	\$ 50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206)622-2229

●8.15 광복절 기념식 및 「한국의 밤」 성황 리 끝내다

지난 8월15일 오후6시부터 11시30분까지 Sea-Tac 공항 앞 Red Lion Inn 에서 광복절 기념식 및 한국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John Cherberg 부지사 부부와 안세훈 총영사 부부, Charles Royer 시애틀시장 부인, John Spellman 전주지사 부부와 주정부 및 각계 지도급 인사들과 우리교포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루어졌다.

오후6시부터 7시20분까지 Social Hour 에 이어 7시30분에 김영남 총무부장의 사회로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고, 이어서 교회연합회 회장인 최태원 목사의 기도로 Dinner가 시작되었다. 8시40분경 신호범 섭외부장의 사회로 Head Table과 귀빈소개에 이어 박태호 한인회장의 개회사, Seattle 시장부인의 축사 및 한국의 날 선포문 낭독, 안세훈 총영사 축사 그리고 John Cheberg 부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안세훈 총영사는 First Interstate Bank 의 William O. Whitaker 부사장에게 한미무역증진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박태호 회장은 전주지사 John Spellman에게 주지사 당시 한미무역증진의 공로와 친동생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데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8월30일부로 이임 귀국하는 김주훈영사에게 이곳에서 봉직하는 동안 교포사회와 특히 한인회에 베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는 뜻으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John Cherberg 부지사는 축사에서 각분야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4만여 한인교포에게 주정부를 대표하여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부친이 85세까지 경영하다 형에게 물려준 시애틀의 한 그로서리를 지금은 젊고 부지런한 한국인이 잘 경영하고 있다고 하며 짧은기간동안 일어난 한국인의 근면성을 높이 치하했다. John Cherberg 부지사는 금년 나이 75세로 과거 28년동안 부지사로 봉직해 왔으며, 한때 UW Football Coach로 활약한 바가 있는 미국 상류사회의 대표적인 한사람으로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축사에 이어 김영진 홍보부장의 사회로 entertainment에 들어갔다. Seattle 한인학교 학생의 무용이 있었으며, 형제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예쁜 한복차림으로 나와 우리 동요와 미국동요를 불러 격찬을 받았으며, 민은기양의 반주로 음악인 동우회 소속 안마리아씨의 솔로 역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서정애씨의 독무와 백정아와 Jean Tradewell의 부채춤은 외국인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이날 한국의 밤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우리 교민보다 미국인들이 더욱 많이 참석하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박태호 회장은 일본제국주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되찾은지 41주년이 되는 이날을 Booth Gardener 주지사와 Charles Royer 시애틀 시장이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은 Olympia 주청과 Seattle 시청에 미국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게양된다고 말하고, 이는 일본통치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는 주정부 및 각계 지도급 인사들을 한국교민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 상호 이해를 통해 우리 교포사회의 권익옹호 및 정당한 대우를 받기위한 모임으로, 이러한 행사가 매년 실시됨으로 우리 교민들이 미국땅에서 인정받는 민족이 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박태호회장은 덧붙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해준 총영사관 및 각기관, 단체, 그리고 교민여러분과 행사준비에 수고를 해준 이사,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박회장은 말하였다.

●주소록 발간에 관하여

금년 행사목표에 하나인 주소록 발간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주소록 발행을 끝냈으며, 곧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 들은 경비와 광고주 모집을 위한 방안을 토의한 끝에 한인회에서는 한국일보와 교섭하여 광고주 모집 및 인쇄일체를 한국일보가 맡아 11월 총회전까지 완성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 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기완 의료원

일반내과
소아과
앨러지과

365-4533
1570 N 115th St #16 Seattle, WA 98133



LEE'S AUTOMOTIVE

Foreign and Domestic
☆ TIRES ☆

JEOM LEE 이점태
Owner

(206) 362-4449
(206) 364-8220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영미정



荣味亭

YOUNG ME RESTAURANT

KOREAN & CHINESE CUISINE
COCKTAIL LOUNGE (LIVE MUSIC)
7 DAYS A WEEK 11:00 AM - 2:00 AM
220 - 4TH AVE. S. SEATTLE, WA 98104 (206) 623-3112

인컴택스
기업장부정리
경영자문
재무제표작성
회계감사

공인회계사 김용철
Paul Y. Kim, CPA

Metropolitan Bldg.
11065 5th Ave. N.E., Suite B
Seattle, WA 98125

(206) 363-5730



○87년 회장단 및 이사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측에 준하여 임원1명, 이사1명, 외부에서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중 3명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다. 이번 87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에서 민학수 총무이사, 임원에서 이동훈 법률고문, 한인회 회원중에서 회장을 역임한 구범희 전회장, 부이사장을 역임한 흥인표 이사, 그리고 고광선씨가 추천되었다. 1987년도 회장단에 많은 사람이 입후보하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총회

1986년도 연례총회는 11월 15일 현 한인회 소재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날은 금년 한해동안 한인회에 많은 협조와 봉사를 해준 교민,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금년총회는 난방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므로 총회에 불편이 없을것이다.

○아리랑의 밤

금년도 아리랑의 밤은 12월 6일 토요일 U W 대학교에 있는 HUB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회에서는 많은 교민들께서 금년 한해 쌓였던 피로를 풀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program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것은 회보와 신문에 광고가 나갈 예정이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박귀희)에서는 상담소 주최로 무료생활영어강좌를 9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개최한다. 강사는 민난희(Mrs. William Hahn) 씨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초회화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생활영어를 강의하는데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란다.

장 소 : 우드랜드 파크 유나이티드 메도디스트 교회, 2층 한인생활상담소 (Wood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302 N 78th St Seattle, WA 98103
연락처 : 784-5691, 363-5660(밤) 323-7582(Mrs. Hahn)

○한인생활상담소에서는 개소 3주년 기념 사업으로 법률상담실을 9월 27일부터 개설한다. 법률상담을 위해 심영식변호사가 자원봉사에 주실 예정이며 법률문제로 궁급한 점이 있으신 분은 미리 상담소로 문의바란다.

시간 : 매주 토요일 9시~12시
장소 : 한인생활상담소 사무실 784-5691

★ 한인회비를 납부하여 우리교포사회 상부상조 합시다.
★ 회비는 가족당 \$20.00

한국의 밤 찬조금

영사관	2,000불
신동선	100불
조영	200불
이동립	250불
이점태	100불
외환은행	300불
이순모	150불
신호범	500불
로명재	200불
곽상영	100불
조병규	100불
오로라식품	100불
상사지사협회	300불
곽중세	250불
상공회의소	300불
Rainier Bank	150불
한국일보	200불
한일각	300불
신라식당	200불
세탁협회	300불
흥인표	300불

광고비

김용철	30불
이점태	90불
King TV	150불
조병규	60불
최경수	350불
최주찬	150불

한인회비 납부자

정운제	20불
엄명보	20불
김성일	20불
King TV	20불
정익선	20불
이용직	20불
Dong J Shin	20불
한상국	20불
Pat Mun	20불
손대관	100불
고광선	50불
김용자	20불
박춘환	20불
한상국	20불
임소기	20불
한상울	10불

한인록 광고모집

마감 : 9월 25일

시애틀 워싱턴주 주소록

5천부 11월초 발간

- ★ 한인회비를 납부하여 우리교포사회 상부상조 합시다.
- ★ 회비는 가족당 \$20.00



공인회계사
이석주

S. J. LE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601 INDUSTRY DRIVE
TUKWILA, WA 98188

(206) 575-0950

중공 질팀 뉴욕 교역상사 특매점

GR ENTERPRISES INC.

DIAMOND & ANTLER WHOLESALER

302 N.E. 45th St. Suite B
Seattle, WA 98105

GRACE HWANG
Vice President

(206) 547-3210 (B)
(206) 547-6177 (R)



新 RESTAURANT
Korean Japanese Cuisine

羅 Shilla

-즉석 불고기, 곰탕, 보쌈김치, 스시바
-연회석 완비, Cocktails, 파킹장 무료
-연중무휴(11-10시), 토·일 오후 1시~10시
2300 8th Ave (corner of Denny & 8th Ave)
623-9996, 223-9289

EDDIE YOON

(206) 582-7996

Attorney at Law
변호사

P.O. Box 98861

Suite A-4, Sun Plaza Bldg.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shington 98499

Seattle (206) 838-2889

행사

○International Ethnic Food Festival 이 80여 나라의 민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Northgate Shopping Mall 에서 열렸다. 이날은 구경빈 한인회 부녀부장의 주관 하에 밥, 불고기, 썰러드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을 준비하여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이 행사에서 1,050불의 이익을 남겼다. 연 3일 동안 도와주신 이사 임원 가족들, 특히 구경빈, 구범희 두분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학년에서 12학년 교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하기캠프가 한인회 주최로 7월 11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다. 이 캠프에는 58명의 청소년이 참가, 각종운동과 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으며, 초빙인사의 강의, 카운슬러와의 상담과 토론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토론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 기간중에는 안세훈 총영사, 최경수 한인회 이사장, 한만섭 이사, 신호범 섭외부장 등이 강의를 맡아주었고 UW 학생회 학생 5명이 카운슬링을 맡는 등 수고를 하였다. 특히 Spokane에서 온 박혁락 Salvation Army 사관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청소년 지도와 주일예배를 맡아 수고해주셨으며, 총책을 지닌 이성춘 청년부장을 비롯하여, 김영진 홍보부장, 김영남 총무, 이승우 체육부장, 백인홍 기획부장 등이 참가, 많은 수고를 하였다. 이 기간중 이영국 태권도협회 회장과 관원들의 시범경기가 있었으며 한인학교의 서정애 선생의 한국 무용 소개 및 이기환 선생의 태권도 기본 동작 지도가 있어 더욱이 자리를 빛냈다.



아모레 화장품

BEAUTY CONSULTANT
KYU JUNG LEE

이규정

17835 WAYNE AVE. N., SEATTLE, WA 98133
• RES (206) 542-6387



제 일 식 품
The First Oriental Grocery Store
[Oriental Foods & Gifts]
Seattle Heights Center

Joo Chan, Chai
대표 최주찬

21405 HWY 99 (Suite A)
LYNNWOOD, WA 98036
PHONE: (206) 774-4103

○7월 15일에서 8월 1일까지 방학을 맞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AT 강좌가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23명의 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Seattle School District의 Mrs. Wolker 등께서 강의를 맡아 영어, 수학등 대학입학을 앞둔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입시과목을 강의하였다.

○8월 1일 참가할 예정이었던 Sea-Fair Parade는 한인회의 원서와 명단이 Parade 본부에 착오로 등록이 안된 관계로 참가가 취소되어, 이를 위해 준비해왔던 많은분들께 죄송하다.

○지난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밴쿠버 John Henry Park에서 시애틀-밴쿠버 한인회의 큰 행사인 시애틀-밴쿠버 합동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시애틀에서 올라간 이사 임원 교포들 80여명을 비롯하여 밴쿠버에 들린 해양대학생 및 사물놀이 농악팀등 4백여명의 교민이 참가했으며, 이날 축구 및 테니스 경기에서는 모두 밴쿠버 팀이 우승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밴쿠버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김경환 밴쿠버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멀리 Seattle에서 온 한인회 이사 임원 및 교민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박태호 회장은 답사에서 조국을 떠나 이국만리에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운 동포애로 우리를 따뜻이 맞이해준 김경환 회장의 밴쿠버 교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일각

Hanil Korean Restaurant
KOREAN ROYAL CUISINE • COCKTAIL LOUNGE
LIVE ENTERTAINMENT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587 0464

EUNG H SHIN
OWNER

조병규 치과

215 North 125 St Seattle, WA 98133

시 애틀 : 367-5570
웨 드럴웨이 : 838-3180

SEPTEMBER 1986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인회보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한인회보 1986년 제7호
발행인 : 박태호
편집인 : 한윤주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TEL: 362-4500

TO: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2940